

배포 2023. 11. 15.(수)

보도시점

(인터넷) 2023.11.16.(목) 06:00

(지면) 2023.11.16.(목) 석간

## 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 11월 16일(목), 늘봄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 발표
-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와 함께 권고문 및 늘봄학교 향후 추진방향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6일(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단체 및 노조 간담회, 현장상담(컨설팅) 등 교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 또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교원단체·노조 4회, 돌봄노조 2회, △(교육청 협의) 업무담당관 협의 5회 등 다수

연구회(2023년 6월 발족)는 지난 5개월간 14명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상윤 차관은 권고문 마련을 위해 애쓴 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하여 늘봄학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늘봄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2.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담당 부서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은종 (044-203-6603)
		담당자	사무관	이건혁 (044-203-6612)
			사무관	이솔잎 (044-203-6606)

# 붙임1 늘봄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 □ 추진배경

-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정책연구 및 권고문 마련 추진
  - \* (연구책임)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 토론회를 통해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실시하고 '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23.12월 예정)

## □ 개최 계획

- (일시/장소) '23.11.16.(목), 14:00~15:10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
- (참석) 교육부,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교원,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13명
  - (교육부) 차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좌장) 등 6명
  - (지정토론) 교원, 학부모, 복지부 팀장 등 4명
- (내용) ①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연구회 권고문' 발제  
 ② 권고문에 대한 전문가, 현장(학부모, 교원 등) 의견수렴

## □ 토론회 일정(안)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4:00~14:02	(2')	■ <b>개회</b>	※ 사회: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공개
14:02~14:05	(3')	■ <b>교육부 차관 모두발언</b>		
14:05~14:20	(15')	■ <b>권고문 발제</b> •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연구회 권고문	서울여대 교수	
14:20~14:35	(5') (10') (5')	■ <b>지정토론</b> • 교원 • 학부모(2) • 복지부 마을돌봄TF 팀장		비공개
14:35~15:05	(30')	■ <b>자유토론</b>	미래교육돌봄연구회	
15:05~15:10	(5')	■ <b>마무리</b>		

지난 6월 9일 이후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대를 위한 정책 자문과 논의, 분야별 연구 검토 등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첫째,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둘째,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확산 모델을 정립하길 권고합니다.

셋째, 늘봄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 돌봄전담사, 교육 강사 등 여러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 구축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학교 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권합니다.

다섯째, 늘봄학교를 계기로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사회서비스 고도화 차원에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 I.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학교 역할·기능 확대

‘가르치는 공간’으로서 학교에 ‘돌봄’의 개념이 접목되는 변화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돌봄’과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져 갑니다. 아동과 부모의 높아지는 욕구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가 나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1 에듀케어」는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접목이 초등학교 내에 구조화되는 계기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주체로서 교사 등 관계자들의 이해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 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 선생님 등 관계자들은 늘봄학교로 인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가르치고 돌보는 시간,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 학교 공간 활용,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체 등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 아동과 부모, 교사와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와 소통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 소통의 노력을 더욱 가시화하고 배가하여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늘봄학교의 본격적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 II. 지역사회 주도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 확산

늘봄학교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반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긍정적·부정적 반응이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오후에도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한 학교나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와 지역도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조직 간 연계가 잘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돌봄이 서로 교류 없이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 기회를 제공하려면 학교 따로 지역 따로 식의 접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이 서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별 학교 역량이나 공간 자원으로 어렵다면 여러 개의 학교가 거점학교 중심으로 늘봄학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역 차원에서는 교육청과 광역 지자체가 가칭 「늘봄학교 지원협의회」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가칭 「늘봄학교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개별학교 중심 지역사회 연계, 거점학교 중심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중심 늘봄학교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III.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 구축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담만 잔뜩 짊어진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지속가능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부담 확대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이 있다면, 운영 지원체계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도 교육청에 가칭 「늘봄학교 지원센터」를 공통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업무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늘봄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 내 늘봄학교 전담실 설치입니다. 기존 교원은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에

서 분리되면서 새로 배치되는 인력이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원이 수업 시수 경감을 받으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보는 형태가 아닙니다.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전담 인력을 개방형 직위제나 계약제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전담 인력의 자격 조건은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 퇴직 교원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가칭 「늘봄학교 지역지원센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분리된 늘봄학교 전담실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개별학교가 아니라 거점학교 단위로 늘봄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지역지원센터는 결국 여러 학교를 동시에, 그러면서도 거점 늘봄학교를 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시 필요한 지원을 접근성 높은 지역에서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지역지원센터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늘봄학교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지자체는 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예산 조달과 더불어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 방(과후)굿(good)’과 중구 ‘중구 초등돌봄’, 경북교육청 ‘굿센스’ 같은 사례입니다.

#### IV. 행복한 늘봄학교를 위한 투자 확대 방향

늘봄학교 도입과 확대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틈새돌봄에 대한 투자와는 규모가 달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늘봄학교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할 예산을 지자체가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가 늘봄학교 인력 증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행정 업무와 각종 민원에서 해방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인력 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개설하여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 눈에 띄는 투자 확대가 있어야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더욱 크게 열릴 것입니다.

학교 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투자 확대도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오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가 공간을 만들고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수영 등 체육 활동이 있습니다. 음악·미술 등 예능 프로그램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 공간 활용, 거점형 공간 확보 등 투자 대상 확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V.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

늘봄학교는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가르침에서만 정체성을 찾았던 학교에 ‘교육과 돌봄’이 융합되는 변화입니다. 교육·돌봄의 융합이 갖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대로 가르치기만 하고, 또 돌보기만 해서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배움의 열의로 성취의 즐거움을 쌓아가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고 타인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평생 학습력,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의식으로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늘봄학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돌봄 융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어른이 아이에게 주입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헤아리는 관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만들어 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서비스입니다.

둘째, 이주배경아동(다문화 아동), 장애아동 등 조금씩 다른 상황에 있는 아이를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침을 제공하고 돌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늘봄학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친구들의 생활과 삶을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전인격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늘봄학교는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한 성장·발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부모가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명 ‘늘봄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늘봄학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늘봄학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교육,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모든 영역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 VI. 결론

늘봄학교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교육을 하는 돌봄, 돌봄을 하는 교육이라는 아직 낯선 개념을 실천하는 변화입니다. 늘봄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부모의 일·가정양립,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수적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그 환경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지속가능하게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늘봄학교의 도입 및 확대를 지원하는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늘봄학교 전담인력제도, 늘봄학교 지원센터 등이 제대로 작동하여 늘봄학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늘봄학교가 새로운 차원에서 교권 확립 및 보호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늘봄학교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권합니다.